

부산시, ‘해수부 임시청사 확정’에 지역 부동산 시장 활력

동구 소재 IM빌딩·협성타워 결정 박형준 시장 “연내 이전에 협력”

동구, 입주예정 아파트 대기 중 미분양이던 남구도 분양 완료 ‘속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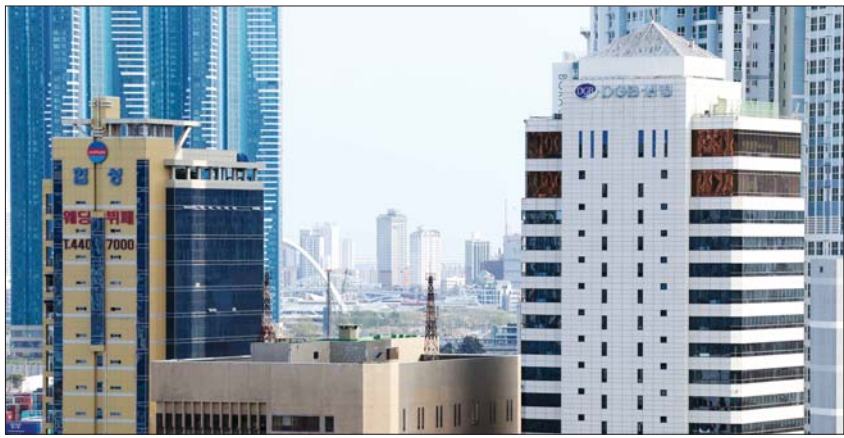
해양수산부 임시청사가 확정됨에 따라 부산 동구 일대 부동산 시장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수부는 지난 10일 부산 이전 청사 위치를 부산시 동구 중앙대로 소재 IM빌딩(옛 DGB생명빌딩, 본관으로 사용)과 협성타워(별관으로 사용)로 결정했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을 대상으로 본부 인원(850여 명)을 모두 수용할 수 있으며, 연내 이전이 가능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들을 물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전과 관련해 부산시는 해수부와 협의를 통해 향후 직원 정착 지원, 생활 인프라 확충, 가족 이주 등 정주 여건 마련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해수부의 빠른 결정을 환영한다”라고 밝히면서 “해수부가 빠르게 이전 청사 위치를 결정



해양수산부는 10일 부산 이전 청사 위치를 부산 동구 소재 IM빌딩(본관·사진 오른쪽)과 협성타워(별관·왼쪽)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한 만큼, 연내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시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해수부 이전 청사는 부산 신청사가 마련될 때까지 임시청사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 부산 신청사는 부지 선정, 설계, 착공 등을 감안하면 완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신청사는 정부세종청사(세종특별자치시) 및 정부서울청사(서울 중구), 서울 여의도 국회 등 KTX 편을 이용한 해수부 공무원들의 잦은 업

무 출장 등을 감안해 부산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교통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부산 동구 김진홍 구청장은 “해수부 신청사 건립 부지는 북항 재개발 지역에 이미 확보돼 있다”며 “동구는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TF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신청사 후보지로 거론되기 전의 북항재개발 지역은 지난 2월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재개발됐다. 앞서 이 사업은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제 불확실성에 맞물려 사업성 재검토를 위해 2023년 이후 중단됐다가 이번 해수부 청사 이전 소식에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항재개발 지역은 중구 동구 일원 약 228만㎡(육지 157만㎡, 수역 71만㎡) 부지에 항만구역 및 철도 시설, 주변지역 재개발을 통해 주거 상업 업무 숙박 마이스 등 복합기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미 1단계 사업으로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부산항 복합 친수공원, 북항 마리나 등이 개발 완료됐고, 부산 문화 인프라를 향상시킬 오페라 하우스도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해수부 신청사 건립의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북항 인근 부동산 시장도 주목받고 있다. 북항 재개발과 해수부 이전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대형 호재로 평가 받는 만큼,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구는 이미 분양 완료한 아파트와 9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도 대기하고 있으며 미분양이던 남구 인근 대단지 아파트들이 속속 분양을 완료하고 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대구시

이달 재산세 2500억 부과

대구시는 관내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2500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9억원(3.3%)이 증가된 금액이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과세대상 주택이 2만 6000건 증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대구=김강석 기자 presskim@

포항시

동빈대교 명칭 ‘해오름대교’ 선정

포항시는 가칭 ‘동빈대교’의 최종 명칭으로 ‘해오름대교’가 선정됐다.

포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교량의 이름을 시민이 직접 정함으로써 명칭 혼동을 방지하고, 지역의 고유성과 상징성을 담았다.

명칭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포항대교’, ‘해오름대교’, ‘상생대교’, ‘해맞이대교’, ‘일월대교’ 등 5개가 최종 후보로 올랐다.

포항시는 이들 명칭을 대상으로 시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총 882명이 참여해 ‘해오름대교’가 374표를 얻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창원시

내달 대중교통 버스요금 인상

창원시가 오는 8월 1일부터 대중교통 버스요금을 조정한다.

조정된 요금 체계를 보면 일반인의 경우 시내버스, 좌석버스, 마을버스 모두 200원씩 오른다. 청소년 및 어린이 요금은 시내버스·마을버스가 100원, 좌석버스는 150원 인상된다.

시는 이번 조치의 주요 배경으로 버스업체의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을 들었다. 운송업체의 재정 안정성 확보와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인상된 요금은 8월 1일 첫차부터 적용된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부산시 해운대구

내달 시간제 보육 서비스 운영

해운대구가 오는 8월 1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운영한다.

해운대구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보육 어린이집’은 좌1동에 있는 늘사랑어린이집이다. 부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설·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은 제외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포항시,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대전환

오는 8월 ‘저탄소 철강 국제워크숍’ 2028년 COP33 유치 준비도 박차

산업도시로 성장해온 포항시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여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포항시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목표로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의 중심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열린 세계녹색성장포럼(WGGF)은 이러한 방향성을 대내외에 공식화한 신호탄이 됐다.

에너지, 환경, 녹색산업 분야의 정부·기업·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포럼에서 포항시는 ‘기후산업 도시’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천명하고, 산업 중심 도시에서 지속가능 성장 중심 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

영양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3개 지구 선정·국도비 60억 확보

영양군(군수오도창)은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6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서 영양읍 동부2리, 청기면 청기2리, 석보면 화매2리 3개 지구 선정과 함께 국도비 60억원을 확보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양군은 지난 2월부터 주민설명회 개최 등

특히 철강, 수소, 해양에너지 등 기존 산업 기반에 탈탄소 기술을 융합한 포항만의 기후산업 모델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는 국제 협력 확대와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이자, 산업·환경·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도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포항시는 오는 8월 UN산업개발기구(UNIDO)와 공동으로 ‘저탄소 철강 국제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60여 개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참석해 철강 산업의 탄소 감축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시는 2028년 예정된 COP33 유치를 위한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COP는 190여 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 정상회의로, 유치가 성공할 경우 포항은 국제적 위상 제고와 기후산업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산시-강원도, 동해안권 관광 활성화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와 동해선 연계관광상품 개발 집중

부산시와강원특별자치도가동해선을 매개로 한 관광협력을 본격화한다.

부산시는 동해선 개통을 계기로 강원특별자치도와 동해선을 연계한 협력을 강화하고 동해안권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시는 관광객의 다양한 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부산을 거점으로 한 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4월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 상품으로 ‘원데이 투어상품(SIC)’, ‘맞춤형 테마상품(SIT)’, ‘부울경 관

영천시, 아열대농업 연구·보급 기반 마련

총사업비 148억 투입

영천시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륙지역 아열대농업 연구·보급을 위한 기반 조성을 마쳤다.

시는 북안면 반정리 일원 3.9ha 부지에 총사업비 148억원(도비 50억원, 시비 98억원)을 투입해 아열대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했다. 최근 18종의 아열대작물 임식을 완료하고 재배 실증연구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적합한 품종 선별과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아열대작물 창업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재배기술 이론과 단지 내 식재된 작물에 대한 실습 기회를 제공해 신소득작목에 관심 있는 농업인들로



영천시 아열대 스마트팜에서 재배 중인 애플망고. /영천(경북)=김준환 기자 kih9@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영천시는 2021년부터 아열대 작물 재배와 환경관리에 특화된 전문 농촌지도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왔으며, 이들로 구성된 ‘아열대연구팀’을 지난 7월 1일 신설했다. 재배·연구·교육·상담 등 전 분야에 즉시 투입 가능한 전문성을 갖추며 장기적인 준비의 결실을 맺고 있다.

/영천(경북)=김준환 기자 kih9@